

담양군, 메타랜드 입장료 반환 논란 종결

항소심 기각...메타랜드 입장료 논란 끝내

광주고법 "메타랜드는 공용재산...징수 정당"

전남 담양군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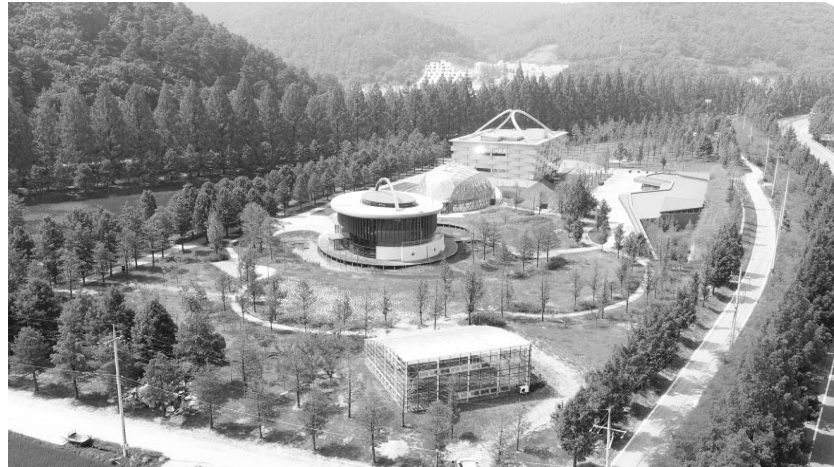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1심 판결 결론과 같이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메타랜드는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며, 입장료 징수는 법적 하자 없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 2000원이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앞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지난 2019년 6월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원고 측 항소 제기로 이어진 2심 재판부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감사드리며, 입장료 징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종식되어 기쁘다. 담양을 사랑하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계기로 메타랜드 내 지난해 개장한 예코센터, 개구리생태공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함께 가족단위 생태체험 명소가 가꾸어 다양한 여행객들이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순천시, 설맞이 주요 관광지 대청소 실시

설 연휴 생활폐기물 비상 처리대책 추진

순천시는 21일 설명절 맞이 일제 대청소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청결한 환경속에서 설 연휴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비상처리 대책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21일을 설맞이 일제 대청소로 날로 정하고 4대 관문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대행업체, 자원봉사단체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소를 실시했다.

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쓰레기 수거 민원 처리를 위해 공무원, 환경미화원, 대행업체등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상하수도반과 공동체

리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설명절 연휴기간 중 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설 당일과 다음날을 제외하고는 환경미화원들의 정상 근무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한다.

채승연 생태환경센터소장은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나주시, 개인지소세 시청서 납부 받는다

납세자 불편 최소화 위한 홍보 강화

나주시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기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닌,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

야한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에 위택스에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신고시스템이 마련됐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국세인 소득신고 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투입하면 된다.

고흥군, 원예농가에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

고흥군은 과수·원예농가의 농업 중 발생하는 생리문제 해결과 여성·고령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하우스 및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이화장실 설치지원 사업은 농

촌 수질환경 오염방지 및 생태 환경개선 보전은 물론 농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어, 금년에는 25동을 추가 설치하고 과수, 원예 농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렴 캠페인 전개

청렴한 명절 보내기, 따뜻한 '정'만 주고 받아요

영광군은 지난 20일 월요일 출근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공무원노동조합 및 감사부서가 함께 전개한 이번 캠페인은 그들

은 의미로 '정(情)'이 담긴 초코파이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부패 추방 실천 내용이 담긴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출근하는 동료 공직자의 동참을 요청했다.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감사부서에서는 설과 추석 양대 명절을 통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

인을 실시하는 등 매년 부패추방 및 자정 노력에 힘써 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청렴한 지자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전라남도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정상 예약必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1일부터 노고단정상(노고단고개~노고단정상 0.5km) 구간을 지속적으로 탐방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리산전남사무소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노고단정상 일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과 탐방객 예약문화 정착을 위한 탐방예약제(1,920명/일)를 2019년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노고단고개에 탐방예약 자동확인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고단정상 탐방예약은 인터넷 예약으로만 가능하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과수 전정으로 한 해 농사 성공가지치기

죽곡면 감 작목반 현장 전정교육 인기



곡성군이 감 재배농가 전정기술 향상을 위해 지난 20일 죽곡면 감 작목반원을 대상으로 동계 전정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곡성군

은 2월말까지 감, 블루베리, 체리 등에 대해서도 읍면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동계 전정요령은 물론 비배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주요 과수 재배기술

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까닭에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정은 과수 재배에 있어 정말 중요한 작업이다. 전문가 교육을 통해 재배기술이 한 단계 발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남은 교육에도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현장 전정교육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에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팀(061-360-7361)으로 1월 말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핵과류는 2월, 인과류 및 장과류는 3월까지가 동계 전정기간이므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